

어영역

2점씩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어 영역

에 맞추어 완성한 것은?

물음에 답하시오.



것은?

어영역

[11~12] 다음은 '자연 탐사 활동'을 학교 신문에 실기 위해 쓴 기사 초고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굼부리에서 생물 선생님과 함께 식물 분포를 조사하고 있는데 ㉠ 꾸물꾸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긴 채 세계 최장의 용암 동굴인 만장굴로 이동했다. 굴 안의 풍경은 ㉡ 너무나 아름다웠다. ㉢ 거기에서 보여진 자연의 신비스런 모습에 감탄하던 우리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 힘든 일정에서 숙소로 도착한 우리는 각자의 방에 짐을 풀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반찬이 재료는 좋았지만 대체로 짜짤한 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강의실에서 탐사 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 그래서 오늘 조사한 자료에서 식물들의 종류에 따른 개체수를 확인하여 그 백분율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들 피곤했지만 내일 여정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중략>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 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뺏히 들여다보는 듯이 재줄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는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줄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 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쪽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마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빠꾸기는 또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 장터 갈림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질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즘음에다 걸었다. 윗목 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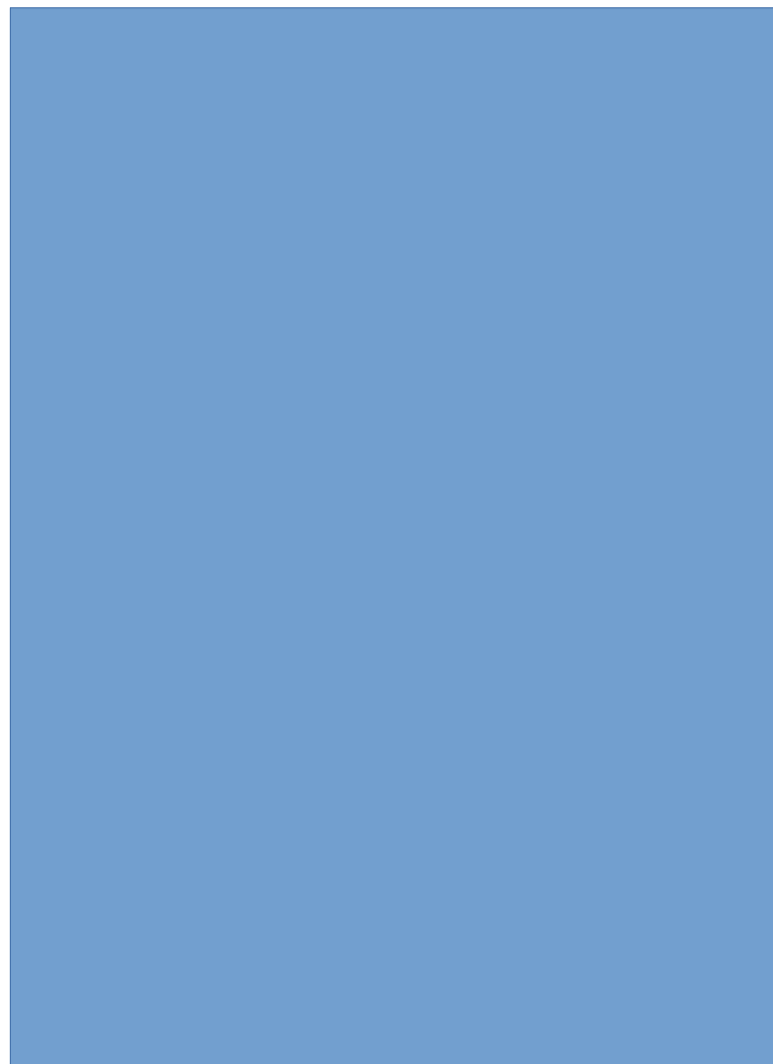
주기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화네 주막에 맡기고 떠난다.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결혼시켜 역마살을 극복하고,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러나 계연은 옥화의 이복 동생임이 밝혀지고 성기의 사랑은 천륜에 의해 좌절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어영역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하동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며,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 영역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인간의 사고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적 활동의 하나인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사고력(???)은 인간의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 작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들이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언어 능력이 성숙되어 가는 것과 함께 지적 능력, 곧 사고력의 발달도 ㉡ 촉진된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문장은 점점 더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한편, 인간이 언어 능력을 갖추고 난 뒤부터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때부터는 언어가 사고의 도구가 되고 추진력이 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써서 생각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빠르고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사고의 능력도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거나 판단할 때에 언어가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각각의 다른 색으로 된 120 개의 색종이를 만들어, 그 중의 하나를 골라서 학생에게 잠깐 보여 준 뒤에 그것을 다시 찾아내게 해 보았는데, 학생들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색깔들을 가장 쉽게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색깔, 즉 아직 이름은 없으나 억지로라도 이름을 만들어 붙이기가 쉬운 색깔들을 쉽게 분별해 내었고,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색깔을 가장 더디게 분별해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정보나 지식을 파악하는 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즉 그의 세계관까지도 결정한다는 견해도 있다. 독일의 철학자 흄볼트는, 한 국민의 사고 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은 인간의 사고력이라는 특성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사고력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사물의 공통성을 추출하는 추상화(???) 능력이다. 즉, '나무'라는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으로서는 '소나무, 밤나무, ……', 큰 나무, 작은 나무, ……'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나무들을 보면서, 이들의 차이점은 버리고 공통점만을 인식하여, 이를 '나무'라는 ㉢ 하나의 범주로 일반화해서 받아들이는 사고 작용이 추상화이다. 이러한 추상화의 기능은 언어 능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해당한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영역



이상(??)
염원(??)
도전(??)
탈출(??)
체념(??)

강냉이가 익찰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 - 김상용, 남(16)으로 창(?)을 내겠소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영역

'내일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내일 해가 뜬다'는 예보는 그 가치가 낮다. 쉽게 말해, 무엇이 나올지 뻔한 쪽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쪽의 정보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다.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엔트로피라 할 때,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엔트로피는 커지고, 그럴수록 정보의 가치도 커진다. 이제 ㉠ 이를 예술에 적용해 보자.

중국 무협 영화는 스토리가 뻔해서 앞만 보면 뒤는 줄줄 꿰뚫을 수가 있다. ㉡ 짐작컨대 이런 영화는 엔트로피가 0에 가깝다. 모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아무도 극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면 영화에 엔트로피를 창출해서 사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작품을 참신하게 하려고 엔트로피를 늘리는 건 예술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해묵은 수법이다. 물론 ㉢ 무조건 복잡하다고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지나치게 크면 그런 정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

미국의 수학자 버코프는 $M = \frac{O \cdot C}{I}$ 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M은 '미의 척도'를, O는 '질서'를, C는 '복잡성'을 가리키는 약자이다. 말하자면 미(?)란 질서와 복잡성의 함수란 얘기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 예측 가능성[네그 엔트로피(neg entropy)]과 예측 불가능성[엔트로피]의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 이론에서는 미(?)를 '엔트로피와 네그 엔트로피의 최적의 관계'로 규정한다. 말하자면 일탈과 질서, 예측 불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적절한 비례를 이루고 있을 때 사물은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다.

'미적 쾌감'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미적 정보는 엔트로피와 일치하고, 의미 정보는 네그 엔트로피와 일치할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지금 여러 서체로 된 서예 작품을 보고 있다고 하자. 거기엔 인쇄 활자처럼 분명한 작품도 있고, 마구 흘려 써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다. 활자처럼 분명한 작품은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으나 별로 미적 쾌감은 주지 못한다. 여기에선 의미 정보가 미적 정보보다 우세하다. 반면 마구 흘려 쓴 작품에서는 서체가 주는 쾌감은 있어도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 여기에서는 미적 정보가 의미 정보보다 우세하다. 즉, 글자꼴이 분명할수록 의미 정보가 증가하고, 글자가 자유로이 제 꼴을 벗어날수록 미적 정보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고전 예술과 현대 예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 의미를 중요시한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대상의 형태가 가장 중요했다. 색채는 단지 대상의 형태를 분명히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대상의 형태가 사정없이 파괴된다. 형태와 색채는 대상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구성을 이룬다. 결국 고전 예술은 의미 정보를 추구한 반면, 현대 예술은 의미 정보를 단순화하는

가운데 미적 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 영역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량으로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 기별을 보낸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면 자신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덕중과 이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덕중은 기절한 척하고 있으라며 박치기를 하여 춘풍의 처를 쓰러뜨린다.

일수 놓아 수천금을 모았구나.

: 잠깐, 이보게! 그것이 무슨 소린가?
 : 염라국 십전대왕께 제문을 올리시는 중이오. 참견을 하려거든 글로 하시오.
 : 추월의 얼굴 모습 들어 보게. (곡을 붙여서) 사창(??)을 반개하고 녹의홍상 두르고 천연히 앉았으니 연광(?Γ)은 십오 세라. 해당화 저리 가고, 서시는 이리 가고, 양귀비는 이저리 가고, 세월 가고, 소리도 다 가고 나서 남은 것이 추월이다. 내 이것을 천자문 보듯 두고 보려고 그러한다. 그 돈 수천금은 꼭 나를 다고.
 : ㉠ 원, 사람이 누웠거든, 문상은 놔두고 문안이나 한 마디 해 보시오.
 : 내가 지금은 상거지가 돼서 그 집 물 저 나르는 사환 노릇을 하고 있어. 먹느니 이 빠진 현 사발에 누른밥에 토장덩이 한 가지로 연명을 하는 지경이여. 그 돈 수천금은 나를 꼭 다고.

: 애고, 이것이 무슨 소린가. 어디 마모색이나 봅시다. (형색을 살피고 내쳐 운다.) 애벌레 망건 쥐꼬리 당줄 통영갓은 어디 두고 파립 폐관이 웬일이오?
 : (귀찮아서 뿌리치며) 그래, 내가 집 나올 적에 돈 한푼 팔푼이며, 자식 삼 형제를 살기 좋게 마련을 해 주고 훨훨 단신 나온 나를 송장 시늬까지 해 가며 이리 추잡하게 찾아다닌단 말인가.
 : 그래, 그 돈 한푼 팔푼은 당신이 집 떠날 적에 하도

섭섭해서 청어 한 몫 사 가지고 당신 한 마리 나 아홉 마리 안 먹었소.

: 그래, 자식 셋은 다 어쩐나?

: 큰놈은 나무하러 가서 정자나무 밑에 낮잠 자다가 솔방울 맞아 죽고.

: 둘째 놈은 앞 도랑에서 미꾸라지 잡다가 물에 빠져 죽고.

: 셋째 놈은 하도 귀여워 어루다가 경기로 풍에 걸려 죽었소.

: 아니, 돈 수천금을 달라고 해서 말을 붙여 보라고 살려 놓았더니 기껏 도루 죽이나.

: 아들 삼 형제 죽어 버렸는데 세간은 남겨서 뭘해.

: 세간 없이 추월이는 어찌 보구?

: 아참, 그렇지. 의원, 의원!

: 급상한이라 난치병이여.

: 봉사, 봉사님!

: (지팡이로 앞을 더듬거리며 나온다.) 어디서 불렀소?

: 여기요 여기. 어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경을 읽어 주시오.

: 성씨가 무엇이오?

: 심달래 심씨.

: (지팡이 끝에 달린 요령 소리를 내고) 해동 조선국 서울시 남산 거주 심달래 신운이 불길하여 우연졸도, 명재경각하였으니 천지신명은 대자대비하옵소서. (요령 소리) 동부 따는 저 처자야 니 머리 끝에 드린 댕기 공단이나, 아하하 헤헤이요. 비단이면 무얼 하고 공단이면 무엇을 할까, 아하하 헤이요.

: 경을 다 읽었소?

: 경을 다 읽으면 살겠소.

: 경을 얼마나 읽었나?

: 경을 꼭 절반.

: 어서 읽게.

: 복채를 내시오.

: 얼마가?

: 돈 꼭 천 냥.

어영역

: 그만둘라우. 치우시우.
: 이대로 중도막에 끝내 두면 죽었다 살아났다 이승 저승을
오락가락하여 나중에 성가셔서 어쩔라고.
: 수천금 너 다 주고 나는 이 병신 업고 장마다
구걸을 다니고? 치워. 갖다 물어야겠어.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 점]

어영역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후백제 왕실의 분란으로 견훤마저 왕건에게 의탁할 정도가 되면서 최후의 승리는 왕건에게 돌아갔다. 왕건과 궁예·견훤의 차이는 단순히 힘과 지략의 차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일국의 지도자로서 민심을 안정시킬 만한 비전을 제시했는가와 권력과 위세로 폭압적 정권을 유지했는가의 차이였다. 지도력과 정책면에서 왕건은 두 사람에 비해 두드러진 면모를 보였다. 궁예가 펼쳐 보인 깜짝쇼, 견훤이 보인 기민한 전술과 거침없는 국가 운영력, 그리고 이 둘 모두가 보여 준 폭풍 같은 추진력은 한때 이들에게 위력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듯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왕건이 보여 준 포용 정책은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지방 독립 세력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왕건의 지도력과 정책이 이렇게 호소력을 가지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왕건은 초기에 궁예의 휘하에

들어감으로써 황해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즉, 왕건은 당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기민하게 행동함으로써, 예성강 하구의 중간 세력에 ㉠ 지나지 않았던 자신의 세력 기반을 궁예의 휘하에서 성공적으로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서해안 해상 세력 전체를 장악하고 나아가 중부 내륙 지방에서도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왕건은 토착 세력이었으므로 궁예나 견훤에 비하면 중간 세력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궁예 세력을 역이용하여 상당한 세력을 확보한 다음부터는 출신 기반의 약점이 오히려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초적(좁도독) 세력에서 출발한 궁예나 견훤이 '타도 신라'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데 비해, 왕건은 군소 지방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즉, 지방 세력들의 눈에는 왕건이야말로 원래 그들과 같은 토착적 지역 기반을 가진 세력이자 친(?) 신라 세력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왕건은 적시에 포용 정책을 내세웠고, 이것은 당시 지방 세력가들을 규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대책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왕건이 내세운 몇 가지 행동과 정책은 그가 자기 시대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왕건이 정변에 성공한 뒤 밝힌 대민 정책에는 궁예 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접근을 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왕건은 궁예의 실패가 사회·경제적 실정과 민심의 이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근검 절약·세금 감면 등 백성을 위한 경제적 안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정한 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를 수립하였다. 왕건은 당시의 사회 혼란이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의 수립을 요구하는 사회 전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당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시의 지방 세력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지식인들의 동향도 그를 향하고 있었다. 궁예가 '미륵불'을 자칭하고 경전을 직접 쓰는 등 불교 지성계의 정상으로 자처하는 오만을 보이면서 이를 비판하는 승려 석총을 죽이는 동안, 전주에서 견훤을 만난 광양 옥룡사의 동진대사 경보는 ㉡ "새들도 쉬려 할 때는 나무를 가려서 앉는데 하물며 나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이 왕건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였다. 역사는 이미 궁예나 견훤을 버리고 왕건을 향하여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 영역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년 전 ㉠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왔다는 기사가 소개되면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알려졌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물질이 생체 내로 들어와서 기존의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로서, 학술 용어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endocrine disrupters)'이라고 한다. 이런 물질들은 산업 활동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태계 내에서 자연적으로는 ㉡ 분해가 거의 되지 않으면서, 생체 내로 유입되면 극히 적은 양으로도 기존 호르몬의 작용을 비슷하게 모방하거나 아예 작용하지 못하게 한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란 이런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2000 년까지 알려진 환경 호르몬은 67 종이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 왜 문제가 될까? 그것은 이 호르몬이 생체 내에서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은 동물들의 발생 과정이 워낙 미묘해서 아주

어영역

작은 영향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동물의 암컷과 수컷은 유전자의 대부분이 같으며, 단지 성염색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에 성공해서 발생을 시작할 때에는 성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생이 진행된다면 개체는 정상적인 암컷과 수컷이 된다. 그런데 염색체상으로는 분명한 암컷이라도 이 시기에 남성 호르몬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정상적인 암컷으로 성장하는 데에 장애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수컷일지라도 이 시기에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불완전한 수컷으로 성장하게 된다. 환경 호르몬이 바로 이 순간에 작용하여, 성 분화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들 개체에서는 성 기능에 장애가 생겨 수컷들이 암컷들의 구애에 관심도 없이 빈둥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혹시 수정이 되더라도 허약한 새끼가 태어나게 되어 어린 개체의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한다.

이 밖에도 이들은 신경계와 면역계의 이상을 가져와 각종 질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천식과 알레르기의 증가 및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증가에 있어서 환경 호르몬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를 보면, ⊕ 생물 농축 현상이 극심해서 더욱 문제를 가중시킨다.

⊖ 애초에 환경 호르몬은 인간에 의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생물체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말았으며, 인간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 호르몬은 일단 한 번 만들어지면 자연 분해가 매우 더디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 내지 않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는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호르몬 기능을 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밝혀 내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규제 대책 시급
- 인공적 생산 불가능
- 환경 보전만이 치유책
- 생식 능력 저하, 각종 암의 원인
- 성비 불균형 초래, 심각한 사회 문제

어영역



어영역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 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니다."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 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 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것 아니요?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재(???)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 배잡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어 영역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골의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주민들을 치료해 온 의사가 있었다. 그는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비를 달리 받는 독특한 방식을 고집해 왔다. 즉, 같은 종류의 치료를 해 주고서도 부자에게는 돈을 많이 받는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받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치료비 차등 방식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적은 치료비만을 받으면서 인술을 펴는 그의 자세가 돋보인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에게 같은 치료비를 받는 경우보다 차등을 두는 경우 그의 수입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방식을 바꿔 지금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 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내게 될 것이다. 이들은 비싸진 치료비 때문에 웬만한 질병 정도로는 좀처럼 병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부유한 사람은 치료비를 조금 낮춰 준다고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다. 종전에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 아픈데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비를 받기로 하면 환자의 방문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그의 수입도 예전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앞서 말한 이 의사가 정말로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치료비에 그와 같은 차등을 두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인술을 펴는 사람으로서 자비로운 마음에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쓰고 있는 방식은 독점자(垄断者)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 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는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정책, 즉 [] 을 통해 [] 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수요자가 가격 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수요량을 별로 줄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겨 차별할 때 독점자의 이윤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독점자가 이와 같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에는 한 가지의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는 이 독점자의 상품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어영역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 받아도 수요량을 별로 줄이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는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돌아서는 무정한 사람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의 상품만 사는 사람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고, 여차하면 다른 상품을 사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시골 의사의 환자들 중에서 치료비의 높고 낮음에 더욱 민감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치료비에 별로 개의치 않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낮은 치료비를 받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 차별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의사는 자신의 이익도 잘 챙기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까지 한 몸에 받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하겠다.